도청 별관 안전진단 '최하위' 판정

즉시 사용 중단해야 … 향후 보존 방식 결정 중대 변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부지 내 옛 전남도청 별관의 안전등급이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할 최하위로 판정돼 향후 별관 보존방식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구조안전기술원 기술사무소에 의뢰해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한 '별관 정밀안전진단 및 기반조사 용역' 결과 최하등급인 'E급'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시설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하등급인 'E급'은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이 생겨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별관 안전진단 결과 기둥 철근의 부식상태가 심화돼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현상과 일부 구간의 침하 때문에 건물 바닥면의 수평편차가 25~152㎜에 달했다. 전체적으로 균열과 누수현상이 심해 긴급 보수·보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건물의 외형을 판단하는 상태평가 등급은 D급(미흡)에 해당했다. 건물 구성 부자재 등의 결함 때문에 긴급한 보수·보강작업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별관의 보존 방식이 ▲'3분의 1'을 보존하는 부분 보존과 ▲별관 1, 2층 일부를 뚫는 '게이트안' 가운데 어떤 형태로 정해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진단은 안전진단 결과를 문화전당 설계자인 우규승씨에게 통보하는 한편, 설계자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존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별관 건물이 예상보다 훨씬 더 낡았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장담할 수 없어 별관 보존방식을 결정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추진단은 7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추진단 사무소에서 옛 전남도청 별관 정밀안전진단 및 지반조사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용역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별관의 보존 방식은 건물의 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 결정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예비 초등생 면접

5일 광주시 동구 계림 초등학교에서 열린 신입생 면접에 참가한 한 예비학생이 초롱한 눈망울로 선생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부, 세종시 땅값 파격 세일

대기업에 3.3㎡당 36만~40만원 공급 … 혁신도시보다 턱없이 낮아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확정함에 따라 외자 및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세종시 부지 공급가격이 전남지역 산업단지 공급가격의 절반밖에 되지 않은데다 거리상 세종시가 수도권과 가까워 전남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어 '최종안건'인 기업, 대학 등 세종시 자족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의 인센티브 계획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 선에서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 선에서 공급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이는 전남지역 산업단지에 비해 3.3㎡당 10~40만원 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조성원가 3.3㎡당 149만원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추진중인 함평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인근 배후 산업단지 부지 공급 가격은 3.3㎡당 70~80만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남지역은 현재 나주혁신도시를 제외하고도 빛그린 산업단지 등 12개의 국가 및 지방산단이 조성중이거나 실시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수도권과 가까운 세종시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기존의 기업도시 및 지역 산업단지는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기업유치 등이 지지부진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 둥지를 튼 기업들의 이전은 물론 추가 투자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은 지방의 산업기반을 말살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찰청 차장에 함평출신 모강인씨

광주청장 이송범·전남청장 박웅규씨

〈모강인 차장〉

〈이송범 광주청장〉

〈박웅규 전남청장〉

정부는 5일 함평출신인 모강인 인천지방경찰청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승진 내정하는 등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장에는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이번 인사에서 광주경찰청장에는 이송범 전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전남경찰청장에 박웅규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이 청장은 장성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조선대 경영학과를 나와 1978년 간부후보 26기로 경찰에 입문, 경찰청 조사과장, 서울청 교통안전과장,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을 거쳤다.

박 청장은 영광 출신으로 1981년 간부후보 29기로 경찰에 첫 발을 내디딘 뒤 고창경찰서장, 함평경찰서장, 광주경찰청 차장 등을 거쳐 이날 치안감으로 승진·내정됐다.

정부의 이번 인사는 지역 안배를 통해 경찰 조직을 안정시키면서도 실무능력을 고려해 보직을 배치했다는 분석이다. 치안정감은 이날 용퇴한 최병민 경찰청 차장(광주)의 빈자리를 함평 출신인 모강인 차장이 채웠다.

치안정감 중 나머지 3자리는 영남(조현오 서울청장, 윤재옥 경기청장) 2명, 충청(김정식 경찰대학장) 1명 등이 포진했다.

치안감의 경우 총 승진자 11명 가운데 목포 출신의 양성철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등 2명이 광주·전남 출신이었고, 영남 5명(부산 · 경남 3명, 대구 · 경북 2명), 충청 2명, 강원 1명, 서울 1명 등으로 지역간 균형이 이뤄졌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김남성 광주경찰청장은 경찰교육원장으로, 유근섭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외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종두

이래 저래 전 국토의 삽질化(?)

한국인 첫 'F1 드라이버' 10월 영암대회 질주한다

KAVO, 출전자 1~2명 선발

세계 최고 수준의 모터 스포츠 경주대회인 F1(포뮬러 원) 자동차대회에 한국인 드라이버가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다.

오는 10월 사상 최초로 영암에서 열리는 F1자동차대회 운영 법인인 KAVO는 5일부터 7일까지 말레이시아 세팡 서킷에서 '한국인 F1 드라이버 선발전'을 개최한다.

KAVO는 한국자동차경주협회(KARA)의 추천을 받아 네덜란드 입양아 출신인 최명길, 자동차경주 국가대항전인 A1 그랑프리 대표 출신 황진우와 안석원, 주대수, 유경욱 등 한국(계) 드라이버 5명의 기량을 시험, 이 가운데 1~2명을 가려 미래의 한국인 F1 드라이버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사상 첫 국내 F1 대회를 앞두고 모터스포츠 저변 확대와 흥행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준비됐다. 국내에서 비교적 큰 인기가 없었던 골프나 미국 프로야구, 잉글랜드 프로축구 등에 한국 선수가 진출하면서 팬층이 두터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아직 팬층이 미미한 모터스포츠 역시 한국인 F1 드라이버가 나올 경우 인기몰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F1 드라이버는 팀이 13개로 늘어나는 2010시즌에도 전 세계에 26명밖에 없는 희소 직업이다. 이번 선발전을 통과한다고 해도 F1 운전석에 앉기까지 길은 멀고도 험하다. 팀당 2명씩인 드라이버는 부상 등의 이유로 일시 교체도 가능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교육감 선거법 개악 말라"

광주교육희망 성명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5일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정치권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감과 교육위원 입후보 요건 수정 및 삭제 등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정치적 야합이다"고 비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분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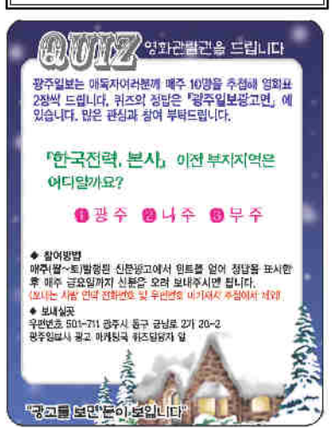
약속어음
수표번호:자가 00132974
액 면 금:금 3,878,270원정
발 행 일:2008년 10월 28일
발 행 인:남양건설주식회사
지 급 일:2009년 1월 5일
지급장소:주식회사 광주은행 영업부
최후소지인:양승태
상기 어음을 분실 공고함.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09년 11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분은 2010년 2월 5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6일

주식회사 케이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옥동 1234-15
청산인 박 윤 진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한국씨티은행과 한가족!
citi 신용대출 직장인 사업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
2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대출대상
- 직장인(또는 배우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매출금액
- 최저 200만원~최고 5,000만원
매출기간
- 1년 ~ 최장 4년까지(6개월단위)
대출금리
- 100만원당 1년 만기 상환시 월 4천 500원부터
신용도를 관리해 드리는 채무통합서비스
타 사에서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고객님께 더 나은 신용도를 열어드리는 채무통합 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및 월 납입금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씨티파이낸셜 전화상담 010-7167-3838

CH중국문화원|광주분원
침·뜸·경락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 13기) 1월 8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선회관 뒷편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 9만원(교재포함)
· 기간 : 주1회 매주 금요일 14시~17시/총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수침/한방기초 등
침구학 전문과정
· 자격 : 기본과정 수료생 · 기간 : 주1회 1년 과정
· 주요과목 : 중의침구학/장상론/특종침법/중의방약학/중의임상학/경혈학/중의기초학 등
· 중국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활법 · 운동처방
· 자격 : 관심있는 분 · 기간 : 매주 금요일 2시간(3개월)
· 주요과목 : 재활운동처방/활법/정체요법/근육조정술 등
· 활법사, 운동처방사, 척추교정사 등 민간자격증 발급
※치료 및 진료상담은 가까운 한의원에 문의하십시오.
CH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아시죠?
단어능력이 곧 영어능력이라는 것을!
압구정 교육목표는 2만2천단어 독파하여 시험 만점, 유창하게 말하게 하는 것 입니다.
유명대학출신이 화상칠판 or 전화로 강의합니다.

＊＊압구정영어Program안내＊＊

과 목	강의시간 및 내용	수강료	강의횟수
화상영어회화	20분	150,000	주 5회/월
전화영어회화	10분	60,000	주 3회/월
단 어	원어민 10분+ 1천~2만 2천단어 (문장, 음성으로 매 20분 강의)	120,000	주 3회
듣 기	원어민 10분+ 초/중/고/고급, 수능,외고 (문장,음성으로 매 20분 강의)	120,000	주 3회
독 해	CNN음성/대본, 영화음성/대본,리딩북 (매 20분 강의)	각 69,000	주 3회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관리 압구정영어 www.ah-english.com
압구정 Trend,압구정 Pride
070-7433-0594